

제7부 · 일을 통째로 맡기기

제4편 · 나만의 업무 시스템 · 56~63단계 · 폴더째 일을 맡기고 결과물을 받습니다

단계	핵심 한 문장	난이도
56 · 일해 주는 AI, Cowork를 열고 작업 폴더 꾸리기	묻고 답하는 일과 맡기고 받는 일은 서로 다르고, 맡길 때는 어떤 폴더를 넘기느냐가 곧 첫 지시입니다.	★★★☆☆
57 · 리서처로 쓰기	조사 범위와 출처 기준을 주고 보고서로 받습니다.	★★★☆☆
58 · 데이터 분석가로 쓰기	엑셀 묶음을 맡기고 표와 차트로 받습니다.	★★★☆☆
59 · 보고서 작성자로 쓰기	흩어진 메모로 주간 보고 양식을 채웁니다.	★★★☆☆
60 · 편집자·검토자와 프로젝트 매니저로 쓰기	내 글은 지적만 받아 고칠지를 내가 정하고, 회의록에서는 근거가 있는 할 일·담당·기한만 뽑게 합니다.	★★★☆☆
61 · 맡기는 법, 확인하는 법	끝났다는 보고를 받으면 결과물부터 열어 봅니다.	★★★☆☆
62 · 권한과 되돌리기	지우고 덮어쓰는 일은 반드시 확인을 받게 합니다.	★★★☆☆
63 · 한 동료에게는 한 가지 일만	여러 일을 한꺼번에 맡기면 어디서 틀렸는지 찾을 수 없습니다.	★★★☆☆

이 부의 과제 · 맡겨 두고 받은 결과물 하나 내 실제 업무 가운데 여러 파일을 재료로 쓰는 일 하나를 골라, 두 단계 이상으로 나눠 Cowork에 맡기고 최종 결과물을 받습니다. 재료는 공개 자료나 이름과 숫자를 바꾼 샘플만 씁니다.

완료 기준

- 결과물이 두 단계 이상에서 나왔고, 단계마다 파일이 남아 있습니다.
- "재료" 폴더의 파일이 처음과 똑같습니다. 지워지거나 바뀐 파일이 없습니다.
- 확인 기록에 원본과 직접 맞춘 숫자가 적어도 하나 있습니다.
- 결과물 안의 숫자나 문장 하나를 골라 어느 단계 파일에서 왔는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.
- 판단 단락에 "그대로 쓴다" 또는 "고쳐 쓴다"가 이유와 함께 적혀 있습니다.